

## 일본 재활용 현황 견학

스틸캔재활용협회, 국내사업 자료 활용

한국스틸캔재활용협회(회장 이동춘)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향후 재활용 추진을 위한 일본 견학 및 실태 파악 후 귀국했다.

이번 일본 동경 센다이 오사카의 견학은 협회 제관분과 위원장인 이철순 중앙제관 사장을 단장으로 협회 실무자 1인 소재회사인 포철에서 2인, 동양석판 1인, 한일제관 1인 롯데칠성음료 1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방문단은 이번 일본 재활용 현장을 견학하고 실태를 파악해 향후 국내 재활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재활용협회는 상근이사에 안백순 전 한일제관 영업이사를 선임하고 재활용 사업장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사무실은 당분간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내에 둘 계획이다.

## 2개 회원사 신규 가입

유리조합, 71개로 늘어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광열)은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태영상사와 신진유리 2개사를 조합사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가입한 태영상사는 고정석씨가 대표로 있으며, 식기, 컵, 양주잔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자본금 3천만원에 종업원이 6명이다. 신진유리는 유리식기류를 가공하는 업체로 자본금 1억원, 최민교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유리조합은 유리공업 품질향상과 발전을 위해 동종업 종간 유대강화, 복리증진 도모 등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의 조직강화에 기여코자 앞으로도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많은 업체를 영입할 것임을 밝혔다.

## 유리조합 식기분과위원회 개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강화 방안등 논의

유리조합 산하의 유리식기분과위원회가 지난달 28,29

양일간 부산 남태평양호텔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기술력 향상에 대한 공동 노력 등 업계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유리조합은 각 분과위원회 별로 모임을 갖고 업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해 논의 하는 등 화합을 다져 오고 있다.

## 임원선출 및 신규회원 가입 승인

AMPEF, 94년도 연차총회 서울서 개최

세계 폴리에스터 필름 제조자 협회 (AMPEF :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f Polyester Film)의 연차총회가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세라톤 위커킬 호텔에서 (주)코오롱과 (주)SKC, 제일합섬(주) 등 국내기업 3개사를 비롯 미·일 등 해외기업을 포함해 모두 19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총회의 임원 선출에서는 M.B.Hartnagel 회장(미국 듀폰사 부사장)이 유임되었다.

새 임원으로는 부회장에 H.Ig-arashi(일 Toray), 운영 위원장에 D.Dartigues(프랑스 롱프랑필름사), 부위원장 에 Y.Kugisawa(일본 Diafoil Hoechst Co.), 재무담당에 T.Gazard(벨기에 ICIFilms) 등이 선출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미국의 3M, 대만의 Nan Ya Plastic Co.의 새로운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밖에 회원사들의 통계자료와 관련한 정관 개정 승인이 있었으며, 북미 및 유럽지역 회의에서 환경과 관련한 제안 등이 있었다.

## 물류정보관리실무 강좌 실시

물류관리협 물류포장 담당자 대상

한국물류관리협의회(회장 안태호)는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물류정보관리실무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전문 강사진을 초빙, 살아 있는 물류를 선보이게 될 이번 강좌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며 참가대상은 물류, 유통, 수송, 포장 등의 물류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신청기한은 7월 15일까지며 신청 문의는 전화 391-4835, 379-9095 하면 된다.

### 강좌내용

#### ● 1일차(7월 19일 화요일)

09:40 10:00	참가접수 및 Orientation	
10:00 13:00	주제 1 정보와 기업물류 가. Logistics란? 나. 고객서비스와 Logistics 다. 제품과 Logistics 라. Logistics 구성요소 마. Logistics 계획 바. 문제점 분석과 동향 사. Logistics 전략과 사열분석	강사 : 한국 I.B.M(주) 이영철 연구원 (물류관리사)
13:00 4:00	중 식	14:00까지 입실완료
14:00 17:00	주제 2 물류정보시스템 설계의 기본 가. 물류정보시스템의 방향 나. 시스템 관리 다. 기능별 정보관리 시스템 - 에발주 -수배송 -제보	강사 : 한국물류컨설팅 이문재 사장

#### ● 2일차(7월 20일 수요일)

10:00 13:00	주제 3 물류센터 NETWORK 가. 시스템의 도입배경 나. 시스템의 특징 및 기능 다. 물류 Network와 정보Network 라. 정보 Network 정보사열	강사 : (주)신흥기술연구실 유준형 이사
13:00 14:00	중 식	14:00까지 입실완료
14:00 17:00	주제 4 전략물류정보와 정보화 시대 가. 전략물류정보시스템(SIS)이란? 나. 데이터 정보 통신 - EDI, VAN 다. 기업물류의 벤치마킹 방안 라. 정보화 시대의 전망	강사 : 한진그룹 물류사업(VAN)개발부 최규용 팀장

## 미국의 신기술 · 신제품 카탈로그전

중진공, 500여 업체 카탈로그 전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주한 미국 주정부사무소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2, 23 양일간 서울 여의도 중진공 강당에서 미국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소개하는 카탈로그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서는 미주리주 등 미국 13개 주에 소재한 500여 업체의 다양한 카탈로그가 공개됐다.

## 미국 포장기계 마케팅 강화

PMMI 대표단 포장협회 등 국내 단체 방문



PMMI의 Andy Benson 이사가 지난 6월 21일 포장협회를 방문하여 한·미간 포장업계 현황에 대해, 그리고 양국단체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포장기계생산자협회(PMMI)의 Andy Benson 마케팅담당이사 일행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포장기계의 마케팅과 올해 11월에 열리는 시카고 팩의 홍보차 내한, 국내 관련단체 및 업체를 방문하고 양국 협조를 다짐했다.

관련기관 및 업체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Andy Benson 이사는 “한·미업체간의 사용자 정보교환, 기술개발을 통해 서로가 이익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날 것”이라며 “한국의 관련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어떤 수요자에게도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임을 강조했다.

PMMI는 미국의 300여개 포장기계 제조사들을 대표하여 세계 사용자들과의 중개역할을 통해 미국 전체의 75~80%를 커버하는 단체로 지난 1933년에 설립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포장·음료·식품·제약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내 포장기계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 전화로 신청해도 산업상황자료 등을 24시간안에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팩과 관련하여 국내 파견단이 PMMI에 도움을

청할 경우 힐튼호텔에서의 개막식 리셉션과 브리핑 등을 직접 알선해 주고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박은 92년에 120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올해에는 1,400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회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포장산업은 80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세계 경기의 여파로 부진했으나 올해 1~2월에는 전년대비 28%가 성장하였고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순으로 시장규모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출이 22~23%로 느는 등 빠른 회복기를 맞고 있다.

Andy Benson 이사는 "미국의 제품은 300여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 기계들은 수동, 반자동, 자동, 연료특성에 따른 것, 첨단 장비를 장착한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어느 지역 어떤 조건하에도 특성에 맞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PMMI일행은 한국포장협회를 비롯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포장관련 단체를 방문해 한·미간 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이번에 방문한 PMMI일행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수요자들을 겨냥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기계제조업 자들과의 경쟁을 선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개설

전 KIDP 과장 이명훈씨,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



지난 6월18일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개업식이 있었다.

마포구 구수동에 위치한 제립패키징 사무실에 임시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여 된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소장 이명훈·사진)의 이날 개업식에 30여명의 축하객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명훈 소장은 "포장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전문가들이 그간의 경험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토대로 국내 포장기술 수준 향상의 초석을 쌓는데 정열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한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는 최신 포장기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신제품 포장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개발, 환경대응형 포장재료 용기 개발 및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포장개발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화:706-1206,팩스:718-3297)

## 한국포장학회 발기인대회 개최

포장의 학술적 발전 및 기술전파 도모

지난 6월13일 쌍둥이빌딩 한정식당 가와에서 한국포장학회 창립총회를 앞두고 발전을 다짐하는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신동소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업계와 학계의 인사들이 함께 한 이 자리는 앞으로 국내 포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포장기술의 전파를 위하여 발기인 일동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이날은 총회에 앞서 회칙을 검토,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6월 13일 트윈타워 가와에서 열린 포장학회 발기인 대회

## 유리전 참여업체 모집

한독상공회의소, 11월 뒤셀도르프에서 개최

한독상공회의소(대표 F슈프너)는 오는 11월1일부터 5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국제 유리전시회(GLASTEC94)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격년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유리전문 전시회로는 세계 최대규모이다.(문의:776-1546/9)

키로 했다.

기계공업진흥회는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중국 천진의 '식품포장 및 인쇄관련 기계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섬유기계 박람회', 베트남 호치민시의 '플라스틱 및 고무기계 전람회' 등 국제 전시회에 국내 기계업체의 참여를 정기화하기로 했다.

진흥회는 이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기금에서 전시 참가비를 지원하고 개별 참가 업체에 융자도 해 주기로 했다.

## 해외 기계전 참여 정기화

기계공, 참가비 지원 마케팅 강화

기계공업진흥회는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가 기계수출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해외시장 개척기금에서 참가비를 지원, 이 지역 전문 전시회에 국내 기계업체가 정기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

## 골판지포장·물류지 창간

골판지조합, 격월간 예정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기현)은 '골판지포장·물류'지의 창간호를 냈다. 격월으로 발행될 이 책은 골판지산업의 기술 및 업계소식, 물류소식, 정책 및 법규 등을 업계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 포장협회 상근부회장에 이대성씨 취임

### 협회 사업활성화 및 포장업계 발전에 역할 기대



이대성 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업디자인 본부장이 이달 1일자로 한국포장협회의 상근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거쳐 동교 산업대학원 화공장치과를 졸업한 이 부회장은 경기도청 건설국 건설과, 한국세광공업(주)에서 근무하다 지난 71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입사했다.

이대성 부회장은 공업표준심의회 포장부회위원, 농산물 표준화협의회 위원, 국방부 규격자문위원, 공예산업 육성자문위원, 포장분야 중소기업 기술지도사 등 포장분야의 실무 및 기술지도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73년 선진포장기술의 습득을 비롯하여 중동지역 포장문제점 조사단 단장, APE한국대표, 동남아 포장산업조사단 간사 등 포장업계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이 부회장의 취임으로 포장협회의 사업이 다양화되고 포장업계 발전에 있어서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신임 이대성 포장협회 부회장은 국내 포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전 포장업계를 포용하는 등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